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논의’ 전남 간담회도 ‘반쪽짜리’ 우려

민주 광주시당 19일께 도청서 김영록 지사와 간담회 조율 일정 조정 힘들어 전남 국회의원들에 참석 요청 안하기로 김산 군수 참석 여부 관심...민간공항 이전 시기 화두 전방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주관하는 ‘광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전남 간담회가 이르면 추석 이후 전남도청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에 이어 또 다시 ‘반쪽짜리’ 간담회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광주시에서 열린 간담회의 경우 당초 참석 의사를 밝힌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데다, 이번에는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참석 요청 공문조차 보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남도가 김산 무안군수에게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고 있는 데다, 전남 국회의원들의 참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광주·전남 정치권을 총망라한 공항 문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추석 명절 이후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지사와 ‘광주 군공항 이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로선 19일이 유력하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서구을)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일단 김영록 지사만 참석 입장을 통보했다. 전남도는 김산 무안군수에게 간담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남지역 국회의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시당은 추석 연휴 직후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만큼 일정 조정이 쉽지 않아 전남 국회의원들에게는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

전남 간담회에서 광주시당은 김영록 지사와 대화를 통해 전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갖고 광주시·전남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남 간담회의 화두는 민간공항 이전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지사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무안으로 선정하면 광주 민간공항을 즉시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실제 김지사는 지난달 6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광주 민간공항을 즉시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달 6일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광주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안도걸 의원(동남을)은 “광주송정역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역까지 고속화하는 호남선 KTX 2단계 개통 전 공항 이전 방식을 결론짓고 2026년 개통에 맞춰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에 먼저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2면에 계속 /김재정·박선경기자



“송편 빚기 재밌어요” 10일 광주 북구 오치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추석맞이 송편 나눔 행사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원봉사 캠프까지 회원들과 송편빚기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날 만든 송편은 관내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한다. /김애리기자

“1대학-2병원 부지 확보 등 현실성 반영 평가해야”

●‘국립의대 신설’ 목포대·순천대 설명회

“도민 의견보다 ‘대학 의견 수렴’ 필요” 한목소리
설립방식선정위 김도후 내일 최종 설립방식 발표

전남국립의과대학설립을 위한 목포대학교·순천대학교 설명회에서 유력 설립방식 중 하나인 ‘1대학-2대학병원’ 추진 시범적 검토·부지 확보 등 현실성을 반영,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설립방식선정위원회가 기본안으로 제시한 2개 방안을 놓고 이뤄진 도민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남 국립 의대 신설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진’ 용역 주관사인 에이티커니코리아(A.T커니코리아)·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10일 목포대(오전)·도립캠퍼스와 순천대(오후) 산학협력관에서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도 공모 진행 이후 양 대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는 의대 설립 주체인 대학의

설립방식 기본안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비공개로 열린 설명회에서는 현재 용역 추진상황, ‘설립방식 기본안’에 대한 적합도를 묻는 도민(2천명) 여론조사 결과(8월30일-9월3일 진행),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 기본안, 공모 평가 기준 등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목포대 150명, 순천대 150명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대는 1시간 40분, 순천대는 2시간 20분 가량 설명회가 이어졌다.

설립방식 기본안으로 제시된 ▲의대 1곳 선정 후 동·서부 2개 대학병원 신설 ▲의과대학·대학병원 동일 지역 설립 등 2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향후 마련될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6일 1차 사전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한 설계절차, 평가 기준에 반영될 지침, 평

가 항목(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양 대학에서는 ▲설립방식 중 ‘1대학-2대학병원’에 대해 법적 검토와 부지 확보 등 현실성을 반영한 평가 필요 ▲제안서 작성을 위해 병상 수, 정원 규모 등 구체적인 설립방식 제시 요청 ▲여론조사 대상인 도민 2천명의 대표성 우려·공개 요청 ▲순천대 공모 불참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양 대학 모두 “도민 의견보다 대학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오병길 AT커니코리아 파트너는 “그 동안 대학의 의견을 듣기 위해 꾸준한 의견 개진 요청했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며 “오늘 설명회를 바탕으로 대학의 목소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양시원기자

전남도, ‘공항 문제’ 연이틀 쏘시장 직격

‘함흥차사’ 발언에 발끈 입장문
“市, 진정성 있는 안 먼저 제시해야”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전남도가 연이틀 강기정 광주시장을 직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전남도는 10일 대변인 명의의 ‘광주 시장 함흥차사 발언 관련 입장문’을 통해 “강기정 시장은 지난 9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전남도가 지난해 12월 광주 민간·군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합의하고도 함

흥차사라고 말했다”며 “광주시가 기피 시설인 군공항 이전을 수용해야 하는 무안군에 보따리를 먼저 갖고 외아하는 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전남도가 보따리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도는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무안군을 스마트 공항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무안 미래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고 올해 7월엔 RE100국가산단 조성과 공항 주변에 호텔, 카지노,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무안공항 관광 및 국제물류특구’ 등을 제

안했다”고 강 시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특히 전남도는 “광주시도 무안군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 진정성 있는 획기적인 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남도는 전남에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 “광주시의 조치와 발표 내용을 보면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무안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는가. 우리가 할 말은 많지만 대응하지 않았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김재정기자

202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교육 희망 토크

일시 2024년 9월 23일(월) 오후 2시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연구원 중강당

광주매일신문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교육 희망 토크를 개최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교육 희망 토크는 9월 23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교육연구원 중강당에서 1부 김현수 교수의 ‘관계 공격의 이해와 접근’을 주제로 열립니다. 2부에서는 학부모·교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 방안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며, 광주매일TV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계자는 물론, 광주·전남 시·도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1부 - <강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 공격의 이해와 접근’
- 2부 - <토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어른의 역할
- 토크 -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이호동 경신여자중학교 교사
- 박윤희 광주동구중학교학부모회 대표
- 박소윤 영천중학교 학생(3학년)

* 본 토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과 **광주매일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YouTube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매일TV**

| 주최 | 광주광역시교육청
| 주관 | 광주광역시교육연구원
| 문의 | 광주매일신문
| 후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Today
‘4피전’ 전남대 총장선거전 접화 7면
기획...MZ세대 결혼 新풍속도 12면
‘제2회 광주 총장축제’ 미리보기 14면